

Group A Project

Case 2.

부실기업 조기진단 프로젝트

강지은 · 김완식 · 김충민 · 장지연

2021. 12



INDEX

- 기획배경
- 조기진단의 필요성
- 부실기업이란,
- 전통적인 기업 평가 방식의 한계
- 솔루션
- 목표설정 및 향후계획



TEAM INTRODUCTION

Kang Jieun

- INFP
- AP Dealer
- PPT Design & Planning



Jang Jiyeon

- INFP
- Supporter
- Presenter



Kim Wansik

- ISTP
- AD Dealer
- Analyst



Kim Choongmin

- ENTJ
- Tanker
- Presenter



Group A Project



기획배경 1 - 'L 사' 의 고민

저는 'L사' 구매팀에 근무하는 민OO 부장입니다.

요즘 제 고민은 ... 우리 협력업체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우리의 2차 협력업체인 'J사'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안 준 거예요.

그런데 'J사' 사장이 "L사에서 대금을 안 줘서 월급을 줄 수 없다." 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헛소문이 인터넷에 돌아서 '대기업의 횡포'라고 엄청나게 욕먹고...

특히 'J사'는 K시 사업장이 켈 큰데, K시 지역 카페에서 우리회사는 거의 마녀사냥 당했더라구요.

또 한 사례는 'N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 회사와 대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이제 같이 잘 해보자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협약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대표이사가 회사를 팔고 도망가버렸어요.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지만, 사실 우리는 몰랐는데 이런 문제의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사전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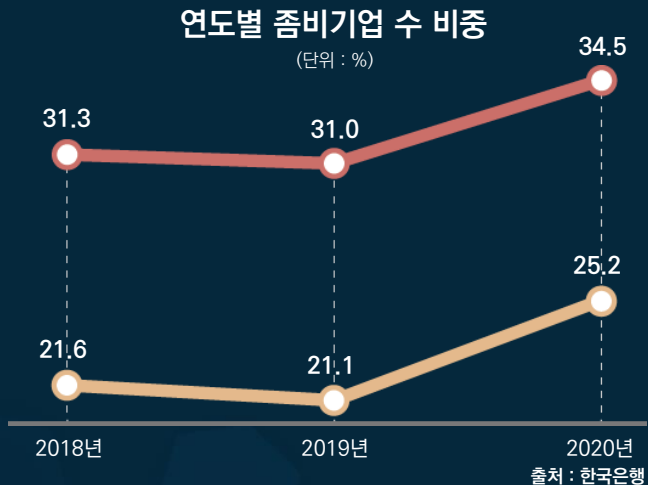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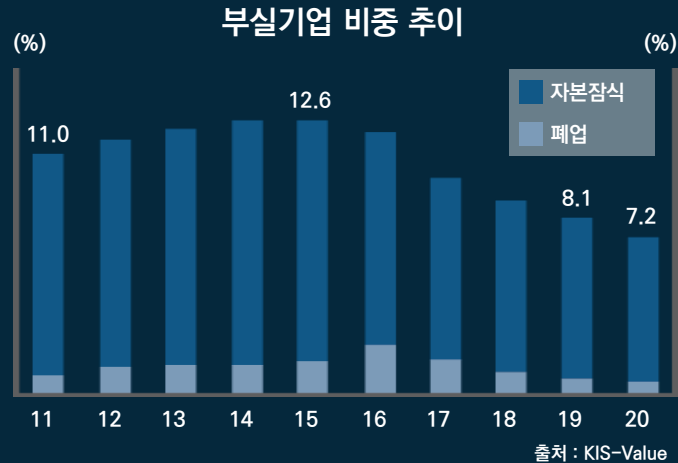
'N사'의 경우는 대표이사가 먹튀 하기 전에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소문이 다 났었다고 하더라구요.

심지어는 금감원에서 조회공시 요구도 받았었고... 우리는 그걸 놓쳐서 한 20억 손해 본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도 데이터 분석으로 좀 해결 할 수 있을까요?



기획배경 2 - 언론기사



금융감독원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시행한 '2020년 채권은행의 정기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대기업 4곳과 중소기업 153곳이 부실징후기업으로 판명돼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이 중 대기업 2곳과 중소기업 89곳은 법정관리에 따른 퇴출 대상이다.

특히, 부실징후기업 수는 2019년의 210개사에서 53개사나 줄어든다. 코로나19 외종에 0등급 기업수가 전년 151개사에서 91개사로 60% 이상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중 대출금리가 하락하고 정부의 상환 유예 등 지원책이 있었고, 실물경제도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면서 기업의 재무상태가 개선돼 부실위험이 비교적 빠르게 하락했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병목 지속, 코로나19 재확산 등 기업부문의 부실위험을 높일 수 있는 잠재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대기업은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2017년 이후 증가추세에서 3년 만에 감소했다"고 자찬했다. 하지만 이는 '눈가리고 아웅식' 정책 결과로 언젠가 터질 폭탄의 크기만 키웠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출처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08787

부실징후 대규모기업집단 2년 사이 1개 → 9개로 늘어

부채비율 200% 초과하고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한진 금호아시아나 쿠팡, 부채비율 500% 초과

2021-12-21 11:48:02 게재

부실징후 대규모기업집단이 2018년 1곳에서 지난해 9곳으로 늘어났다.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고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곳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악영향을 받은 기업집단들의 재무위험이 증가한 셈이어서 주목된다.



내일신문 뉴스



기획배경 3 – 기업사례



'머지포인트'

부실기업은 이처럼 당사 뿐만 관련 업계, 협력사, 투자자, 고객 등으로 **피해**가 이어짐.

백산건설

- 부동산 경기 약화 & 매출 급감
- 지속적인 영업 적자, 결손금 증가, 채무 증가, 자금 유동성 부족
→ 이 시기 유산증자로 자금 조달
- 기업 희생절차 실패 후 2012년 최종 파산
피해 → 협력사와 주주, 입주민, 입주예정자 등으로 확산

GV 금빛

- 지속적인 영업 손실로 자본 손실 및 채무 증가
→ 4년 연속 적자 기록
- 무리한 사업 다각화 시도, 경영진의 자본금 횡령
- 2021년 12월 최종 파산
악성 재고와 미납된 자재 대금으로 협력사 연쇄 도산 가능성 ↑



거래처의 부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부실기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 경제적 리스크 최소화



부실기업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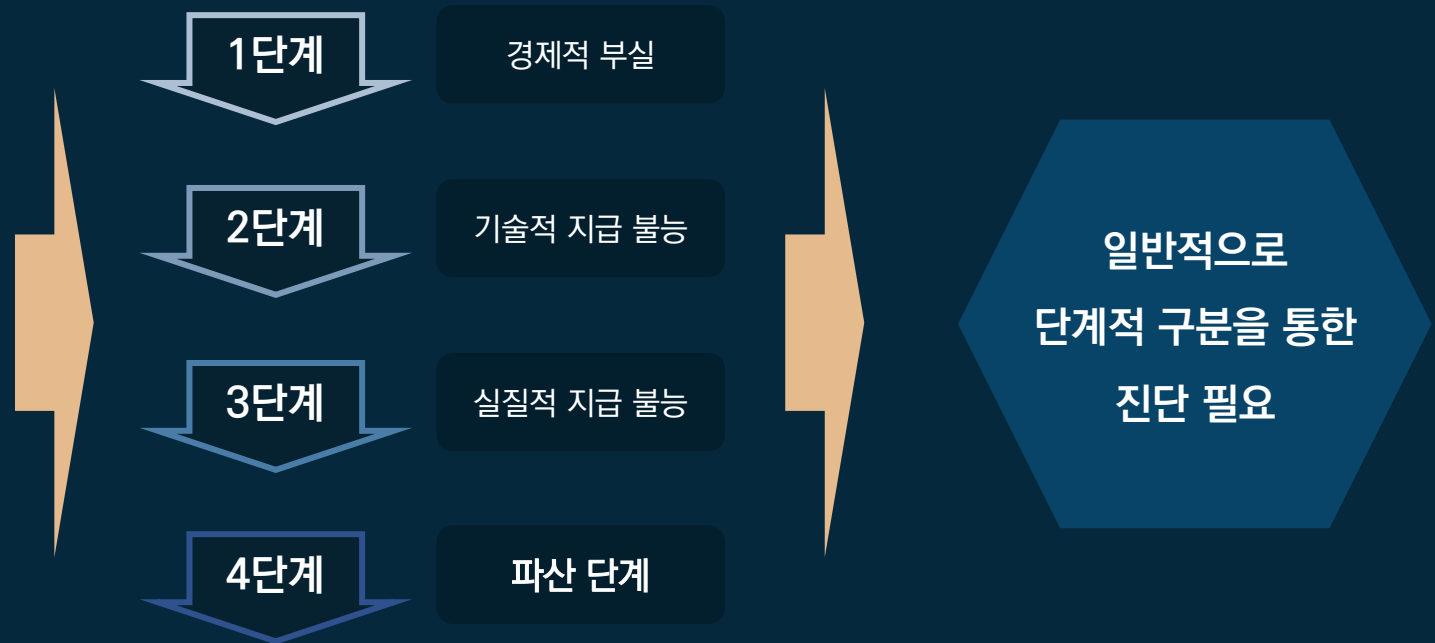
부실징후기업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 없이 일상적인 영업활동 등으로 인한 현금흐름만으로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

- 금융감독용어사전

부실기업 정의가 어려운 이유?

- 실시간 정보를 얻기 어려움
- 부실 정도를 측정하기 난해함
- 재무적·경영적·법적 처리과정 별개



출처 : "기업 부실 조기진단 방법" 리스크컨설팅코리아 자문위원 이기만



부실기업이 보이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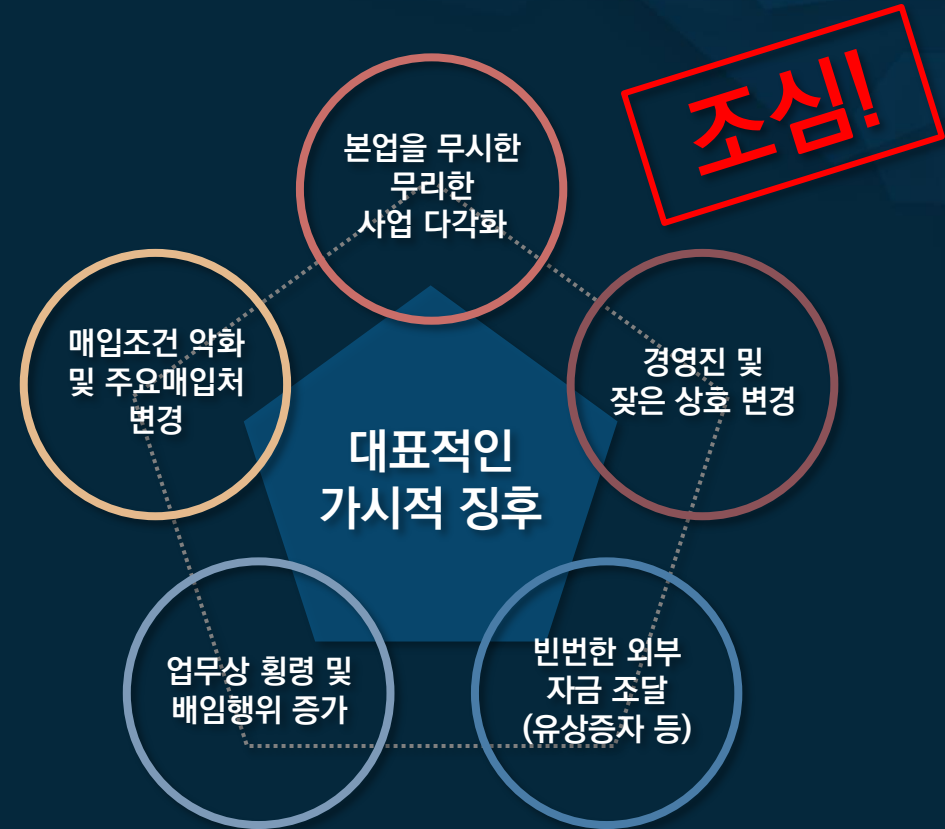
부실 징후

재무적 부실징후 항목

- 영업현황
- 자금상황
- 채무상환능력
- 재무안정성

비재무적 부실징후 항목

- 경영자 및 경영상
- 판매 및 매입상
- 공장 가동 상황 및 직원 태도
- 재무, 경리상
- 은행 거래상
- 어음 거래상
- 외부정보 등





전통적인 기업 평가방식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6호 (약칭: 외부감사법)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 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2. 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3.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인 교체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회사
4.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이
5.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6. 주권상장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 가.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은 회사
 - 나.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회사
 - 다. 3개 사업연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회사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은 회사
-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회사
- 3개 사업연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회사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뉴스기사

AJ네트웍스, 지난해 이자보상배율 1 밑으로 추락...서비스업종 중 '유일'

최문영 기자 mycho@koreas.co.kr | 입력 2020-05-01 07:00:33 수정 2020-05-04 07:13:22

사업구조재편으로 투자 지출 증가

AJ네트웍스 이자보상배율	
	2017년
이자보상배율	1.57
영업이익	772억
이자수익	7억
이자비용	492억

자료: CEO스코어 / 연

종합편입업체 AJ네트웍스대표 유근식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상태라. 미연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이자보상배율 1년새 반토막...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어려워

김유진 기자 yujin@koreas.co.kr | 입력 2020-05-06 07:28:19 수정 2020-05-06 07:11:22

건설사 40%, 이자보상배율 2년 연속 1 미만...3분의2가 30대 그룹

이유정 기자 hyeji@koreas.co.kr | 입력 2015-10-21 08:46:17 수정 2015-10-22 08:49:56

매출 500대 기업 포함 33곳 중 12곳...5곳은 2년 연속 영업적자 기록

500대 기업 포함 건설사 이자보상배율					
구분	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합		1.23	1.23	1.23	1.23
건설사		1.23	1.23	1.23	1.23
제조업		1.23	1.23	1.23	1.23
서비스업		1.23	1.23	1.23	1.23
금융업		1.23	1.23	1.23	1.23
유통업		1.23	1.23	1.23	1.23
에너지		1.23	1.23	1.23	1.23
화학		1.23	1.23	1.23	1.23
기계		1.23	1.23	1.23	1.23
전자		1.23	1.23	1.23	1.23
의료		1.23	1.23	1.23	1.23
항공		1.23	1.23	1.23	1.23
호텔		1.23	1.23	1.23	1.23
관광		1.23	1.23	1.23	1.23
스포츠		1.23	1.23	1.23	1.23
문화		1.23	1.23	1.23	1.23
교육		1.23	1.23	1.23	1.23
서비스		1.23	1.23	1.23	1.23
기타		1.23	1.23	1.23	1.23

500대 기업 이자보상배율 1년새 반토막...현대상선 등 12곳 3년째 이자도 못 벌

유성훈 기자 sy@koreas.co.kr | 입력 2019-11-27 07:09 | 댓글 0

기업명	2017년	2018년
현대상선	9398	6235
대우조선	4573	5464
한진해운	2.05배	1.14배

출처: CEO스코어, 단원: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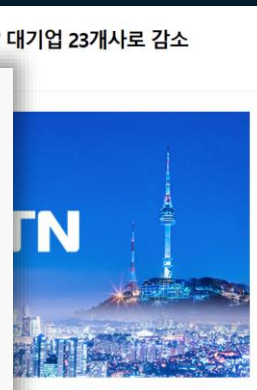
올 3분기까지 500대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5.08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01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수는 34곳이나 됐다.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한계기업은 12곳이다.

27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국내 500대 기업(금융사 제외) 중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247개 사의 3분기까지 이자보상배율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평균이 5.08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01보다 4.9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CEO스코어는 올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76조366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8조4145억 원 대비 40.5%(52조477억 원) 감소했다.

반면 이자비용은 12조8281억 원에서 15조417억 원으로 17.3%(2조2136억 원) 증가했다. 이익은 줄어든 반면 이자비용이 늘면서 기업들의 이자상환 여력이 약화된 것이다.





재무제표를 통한 실제 데이터 확인

아시아나 항공



stx



*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아시아나 항공

년도	영업이익	이자비용	영업활동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2018	28,233	140,202	570,324	0.201
2019	(435,709)	318,274	499,340	-1.369
2020	(276,356)	341,476	(344,874)	-0.809

한진해운

년도	영업이익	이자비용	영업활동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2012	(109,785)	377,842	241,788	-0.291
2013	(412,329)	356,958	496,089	-1.155
2014	82,144	370,621	444,981	0.222

STX조선

년도	영업이익	이자비용	영업활동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2011	9,702	251,280	120,893	0.039
2012	(698,688)	273,005	38,480	-2.559
2013	(2,359,276)	247,900	(1,414,031)	-9.517

쌍용자동차

년도	영업이익	이자비용	영업활동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2018	(64,176)	4,550	177,123	-14.105
2019	(281,905)	8,372	4,550	-33.672
2020	(449,389)	10,867	53,314	-41.354



치명적인 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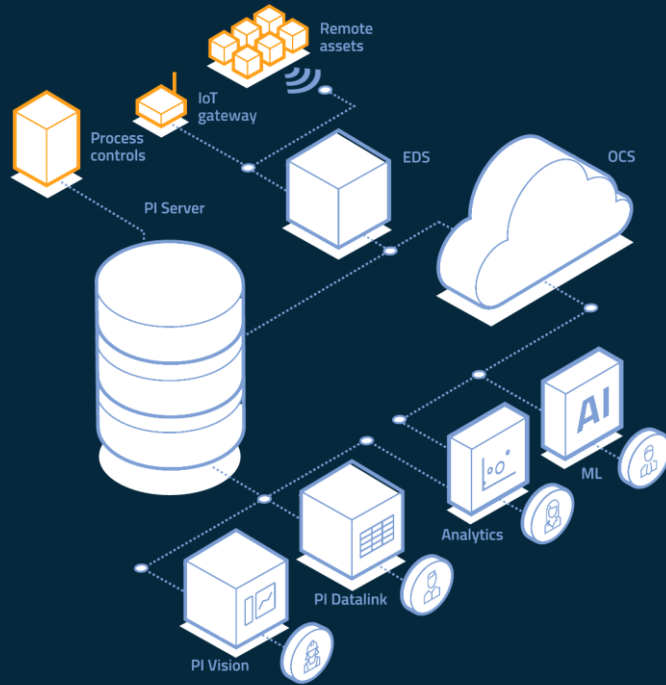
1. 분기별, 연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시간 문제를 반영할 수 없음
2.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에는 적용 불가. 재무제표를 볼 수 없음

전통적인 기업 평가방식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필요

재무적·비재무적 징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한계 극복



Solution 1. 재무적 항목에 대한 부실 징후 학습 및 평가



- 재무제표
- 금융데이터
- 영업 실적
- 재무상태 - 경영 실적
- 자본금 및 채무 - 경영 현황
- 재직 인원
- 입사율, 퇴사율 등 - 인적 사항

...



기업의 재무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 분석하여 부실징후를 반복 학습
실시간으로 수집된 기업의 다양한 여건을 통한 추론으로, 채무상황능력 평가



Solution 1. 비재무적 항목에 대한 부실 징후 분석을 통한 시각적 자료 제공



BIG KINDS

국내 언론사의 기사를 분석하여 검색어와
관련된 키워드 제공 및 OpenAPI 제공

기업관련 사이트

퇴사자, 현직자 등 기업관련 종사자 커뮤니티
또는, 다양한 기업 관련 사이트 활용

한경컨센서스

saramin
blind

Jobplanet

KREDIT JOB

비재무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 분석
부실징후에 대한 인식조사 및 관련 키워드와 트렌드 분석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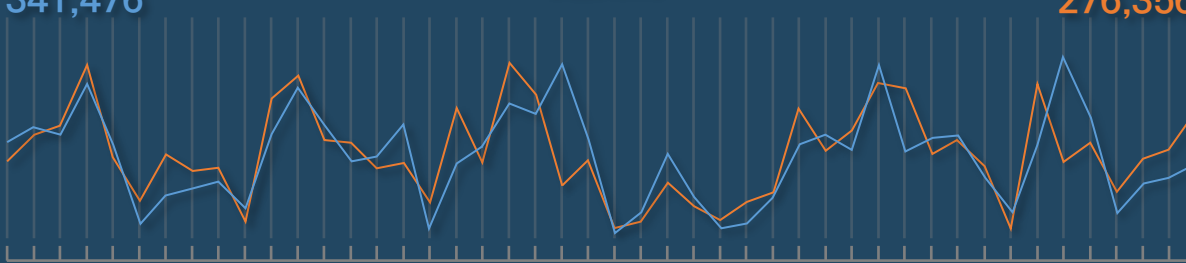


재무적 · 비재무적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Dashboard 서비스 제공

341,476

SALES RAT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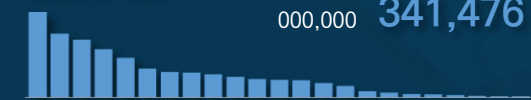
276,356



SALES BY ITEM

000,000

341,476



SALES BY ITEM

000,000

138,276,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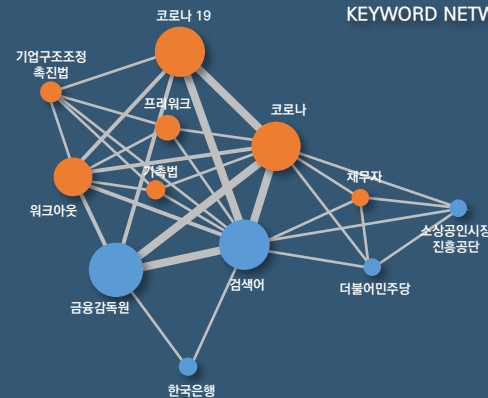


EVALUATION

A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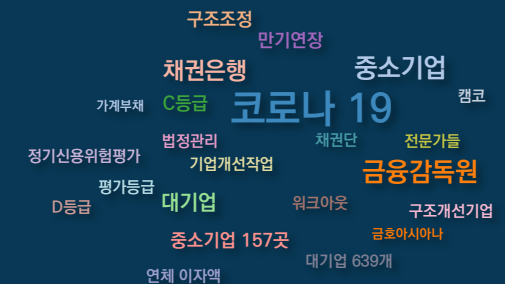


KEYWORD NETWORK



‘부실징후’

WORD CLOUD





1차적 목표 부실징후기업 조기발견

2차적 목표 파트너사 추천 시스템 구현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도모하는 미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모델



Group A Project

- E N D -

강지은 · 김완식 · 김충민 · 장지연

2021. 12